

전남대·조선대병원 교육책...결국 전공의 사직 처리 유보

광주·전남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정부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유보하고 올 상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당시 결원만 후반기에 모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처리를 미루고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지역 수련병원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전공의의 사직처리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정부가 패널티까지 적용한다면 필수로 공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남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인원(TO)으로 총 68명을 신청했다.

양 병원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남대병원 231명, 조선대병원 96명)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유보했다. 정부 방침 대로라면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평위에 제출해야 했다.

전남대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으로 총 28명(소아청소년과, 흉외과 등 레지던트), 조선대병원은 인턴 36명, 레지던트 4명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들은 상반기 전공의 채용 당시 채우지 못한 인원이다. 조선대와 전남대 병원이 결원을 하반기 모집인원으

전공의 수도권 쏠림 우려에 깊은 고민 상반기 결원 68명만 하반기 모집 신청 정부 정원 축소 땀 지방필수로 공백 미복귀 전공의 “빠른 사직처리” 요구

로 정한 데는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7월16일자 광주일보 6면)이 작용했다. 이들 병원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논의해 이러한 교육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회유책으로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부터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타지역 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른바 ‘권역 제한’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하반기 모집을 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응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양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하면 이 인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을 최대한 설득해 병원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 유보나 설득보다는 빠른 사직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 전공의는 “너무 오랫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사직 후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면서 “정부가 모든 요구안을 다 받아주고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잘 되더라도 이미 망가져버린 의료환경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비수도권 필수 의료로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비수도권 필수 의료인력을 먼저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일정대로 하반기 전공의의 모집을 강행할 방침이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의 모집 일정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모집을 마친다는 것이다.

다음달에는 수련병원별로 필기·실기 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의료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게 사직처리를 서두르라고 종용하고 있다. 전공의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파악했으나, 지역 수련병원들이 사직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은 18일 정부브리핑에서 “이전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사직 규모를) 제출 안 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 18일 광주시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다. 신관 완공은 202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층간소음 갈등 아랫집 앞에 쓰레기 17회 놔뒀다면?...스토킹 범죄

지속적 행위로 불안·공포 유발
광주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 현관문에 17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놓아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물건 등을 두게 되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톱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50)씨는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에서 B(여·47)씨의 뒷집에 거주하면서 B씨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아왔다.

A씨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9월 14일 오후 7시 40분께 B씨의 집 출입문 앞에 과자봉지를 놓아뒀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B씨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놓아뒀다. 이를 잡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톱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동기, 횡수,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진 청탁은 관행”이라는 경찰 공무원들

경감 2000만원·경정 3000만원...연루 피고인들 선처 호소

광주지법 항소심 결심 공판

“경찰 공무원들의 승진청탁 관행에 따라 돈이 오간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십시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18일 광주지법 304호 법정에서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청장들은 관행을 내세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7명의 피고인은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씨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5명과 건설업자 1명이다.

이들은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전직 경정·경감으로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만~3000만원을 성씨와 A씨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A씨는 인사권자인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승진제 발원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000만원, 경정 3000만원 등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처벌을 요청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9일 광주지법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전직), 중간 전달책 건설업자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가드레일 들이받은 운전자 사고 직후 교량에서 뛰어내려 숨겨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1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대교에서 A(53)씨가 승용차를 몰다 교각 난간을 충격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19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